

# “데뷔 38년됐어도 새로움에 늘 갈증”



이승철, 3년만에 신곡 '비가 와' 발표

1986년 밴드 '부활' 1집으로 데뷔 다수 히트곡... '라이브 황제' 불려 개인 엔터사 통해 프로젝트 구상 중 곧 전국·월드 투어...유튜브 준비도

“옛 추억팔이는 제 취향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신곡을 꾸준히 발표해야 하기에 늘 새로운 보이스(창법)와 장르에 열려 있죠.”

‘보컬의 신’ 이승철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작업실에서 한 인터뷰에서 “가수 생활을 20년만 해도 신곡에 대한 갈증이 커진다. 새로운 것을 하려면 낯의 것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며 자신의 음악 철학을 이같이 밝혔다.

지난 1986년 밴드 부활 1집으로 데뷔한 이승철은 올해로 가수 인생 38년을 맞았다. 그는 최근 3년 만의 신곡 '비가 와'를 내는 등 내후년 뜻깊은 40주년을 향한 '뽐뽐기'에 나섰다.

'비가 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아쉬움을 묘사한 노래로, 이승철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브릿팝 스타일의 곡이다. 도입 부분 피아노 소리가 마치 빗소리처럼 들려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승철은 “사랑을 그리워하는 노래이지만 후렴구부터는 신선하고 ‘뽐뽐뽐’ 봄비 같은 느낌”이라며 “떠나간 사람을 향한 기분 좋은 기다림을 무겁지 않게 표현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도 있었고, 음악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며 “노래가 웬만큼 좋지 않고서야 대중성과 음악성을 둘 다 맞추기 쉽지 않아 점점 노래를 내기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38년간 다량의 히트곡을 내고 '라이브의 황제'

로 불린 그도 여전히 대중의 입맛에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승철은 “대중 가수이기에 당연히 대중성을 신경 쓴다”며 “후배들에게도 부르고 싶은 노래를 하지 말고 (대중이) 듣고 싶어 하는 노래를 하라고 늘 말한다”고 했다.

그는 “비가 와’도 원래 평범한 발라드였는데, 대중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편곡을 다시 하고 2절을 새로 붙여 타이틀곡으로 완성했다”며 “복을 치는 듯한 느낌과 월드플레이 같은 브릿팝 사운드의 기타 리프에 신경을 써 편곡이 잘 됐다”고 말했다.

이승철은 서울 대신고 재학 시절, 당시 유명한 악기점인 서문악기사에 간 것을 계기로 음악 세계에 발을 디뎠다. 공부하러 다니던 독서실 주인집 아들이 “그룹사운드를 아느냐”며 그를 악기사로 데려갔다. 독서실집 아들이 속한 고교 그룹사운드는 마침 보컬이 비어있자, 이승철의 비범한 실력을 알아채고 그를 영입했다.

이승철은 “그룹사운드를 하면서 고3이 됐고, 이후 수원대에 다니면서 부활과 무대에 몇 번 선 것을 계기로 밴드에 영입됐다”고 말했다.

이후 38년간의 이야기는 익히 알려진 그대로다. 부활 시절 ‘희야’와 ‘비와 당신의 이야기’가 히트했고, 1989년 솔로 활동에 나서며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사랑할수록’, ‘말리꽃’, ‘인연’을, 부활과 다시 손잡고 ‘네버 엔딩 스토리’(Never Ending Story) 등 히트곡을 꾸준히 배출했다.

이승철은 “제가 노래를 잘한다는 건 알았어도 주변에서 음악을 하라고 한 사람은 없었다. 그때 가수를 한다는 건...”이라며 “‘희야’ 때만 해도 부모님이 인정해 주지 않았다. 머리도 장발에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다. 그래도 ‘안녕이라고 말하지마’가 잘 되었고 인정해 주셨다”고 돌아봤다.

그는 이어 “부활 활동 경험 없이 곧바로 솔로 가수가 됐다면 음악적 뿌리가 약했을 것”이라며 “밴드 생활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익힌 역량과 지식이 지금의 편곡 실력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이승철은 솔한 대표곡 가운데 가장 아끼는 노래를 묻자 “히트곡들”이라며 “그때그때 고마운 노래가 있다. 데뷔시켜 준 ‘희야’(부활)와 ‘안녕이라 말하지마’(솔로)가 있고, 그 뒤에도 ‘네버 엔딩 스토리’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가 다 고맙다”고 답했다.

이승철은 음악 활동 외에도 TV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꾸준히 하는 가수다. 국내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의 ‘원조’ 격인 엠넷 ‘슈퍼스타 K’ 시리즈에서 날카로운 심사자 이름을 날렸고, 최근에는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에서 입담을 뽐내고 있다. 김대희의 ‘핀대희’ 같은 유튜브 콘텐츠 출연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승철은 “시대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으니 유튜브에서도 활동하게 됐다”며 “저는 신비주의와 잘 맞지 않는다. ‘라이브의 황제’ 혹은 ‘보컬의 신’보다 그냥 ‘삼촌’이나 ‘승철이 형’ 같은 친근한 호칭을 더 좋아한다. 소통의 벽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2026년 데뷔 40주년을 앞둔 이승철은 개인 엔터사 LSC를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그는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천안·서울·창원·대전·대구 등을 도는 전국 투어를 물론, 아시아·미주·유럽 등지를 찾는 월드 투어도 계획 중이다. 정규 13집 앨범, 자신의 대표곡을 활용한 뮤지컬, 개인 유튜브 채널 개설도 준비 중이다.

그는 음악을 빼고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음악은 인생 그 자체”란 점도 강조했다.

“17살 때 만난 음악을 지금도 사랑합니다. 40년이 돼 가는 지금에야 군더더기도 빠지고 음악이 좀 기억가는 것 같아요.” /연합뉴스

## ‘할리우드’ 직향 타는 배우들

김태희·박해수 아마존 ‘버터플라이’ 캐스팅...손종학, 영화 진출



김태희

박해수

손종학

15일 방송가에 따르면 한국 배우들이 할리우드 작품 속 주요 배역을 꿰차며 미국 대중문화 주류 세계관을 파고들고 있다.

이정재는 지난 5일 공개된 ‘애플라이트’에서 마스터 솔 역할을 맡아 한국 배우 최초로 47년 전통의 할리우드 ‘스타워즈’ 시리즈에 주요 배역으로 출연했다.

‘애플라이트’는 스페이스 오페라 ‘스타워즈’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시리즈다. 1999년 개봉한 영화 ‘스타워즈: 보이지 않는 위험’보다 100년 앞선 공화국 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하며, 평화를 수호하는 제다이 기사단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정재가 연기한 마스터 솔은 자애로운 인품에 지혜와 신념을 겸비해 주위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티저 예고편에 나오는 첫 대사가 솔의 것이었을 정도로 비중이 꽤 크다.

배우 김태희도 데뷔 24년 만에 할리우드에 진출한다. 아마존프라임비디오 ‘버터플라이’에 김지훈, 박해수 등과 함께 캐스팅됐다.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이 드라마는 베일에 싸인 전직 미 정보요원 데이비드 정(대니얼 대 김)과 그를 살해하려는 명령을 받은 현직요원 레베카의 추격전을 그린 시리즈다.

아직 한국 배우들이 작품에서 말을 배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태희 소속사 관계자는 “주요 역할 중 하나를 맡게 됐다”며 “유망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영어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연 배우들뿐만 아니라 조연 배우들의 해외 진출 사례도 늘었다.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2023), 영화 ‘로기완’(2024)에서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인 이상희는 넷플릭스 시리즈 ‘더 리크루트’에 캐스팅돼 최근 캐나다에서 촬영을 마쳤다. 한국 국정원 요원 장군(유태오)의 아내 난희 역을 맡았다.

이상희 소속사 뉴컴퍼니 관계자는 “캐스팅 에이전시에서 먼저 오디션 제안이 들어와서 화상 미팅을 거쳐 작품에 합류하게 됐다”며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세계 시장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을 유의미한 성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50대 배우 손종학도 할리우드에 첫발을 디딘다. 할리우드 영화 ‘24 아우어 쇼나타’에서 한국 조직의 보스이자 전 세계 범주 조직과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유지호 역을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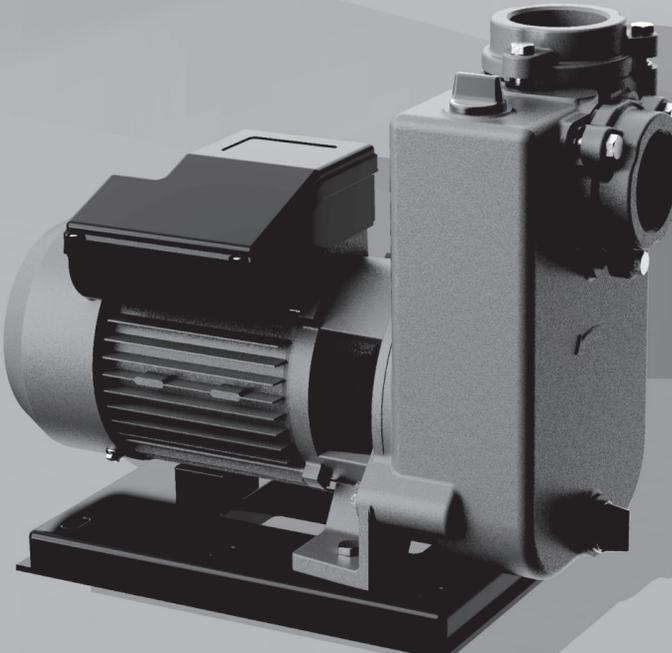
소속사 엘즐라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할리우드 영화에서 50대 토종 한국 배우의 주·조연급 캐스팅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손종학의 카리스마와 연기 호흡법을 인상 깊게 본 레바 레오 감독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를 염두에 두고 캐릭터를 한국인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콘텐츠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고, 할리우드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한국 배우들이 진출할 수 있는 활로는 전에 비해 훨씬 넓어졌다.

2015년 한국인 최초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 영화 속 배역을 꿰차는 등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 중인 배우 수현은 최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제가 연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미국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 배우들의 입지는 얼마아마하게 커졌다”며 “한국 배우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제작자도 많고, 누구를 캐스팅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도 자주 전해 듣는다”고 말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과거에는 한국 배우들이 칸이나 베를린영화제에서 아무리 눈도장을 찍어도 배우로서 상업적 가치를 인정받기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OTT를 통해 한국 배우들의 연기의 힘과 밀도가 잘 전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처럼 흥행 성적 확인된 배우들은 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하나의 필수 카드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그런 배우들을 놓고 투자가 이뤄지면 서 배우들이 다양한 해외 작품에 출연할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wilo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